'철강산업 휘청' 광양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긴급자금 10억원 등재정·정책 집중지원 金지사 "경쟁력 회복·미래산업 기반 박차"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 등 철강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산업위 기선제대응지역으로지정했다. ▶관련기사4면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 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양시를 이날 부터 2027년 11월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은 지난 5월 여수(석유화학)와 8 월 충남 서산(석유화학)·경북 포항(철강)에 이

어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0월1일 광양시의 철강산 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하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천5 11억원 규모의 고용안정·미래경쟁력 강화·시민 생활 안정 등 5개 분야 19개 지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중 285억원은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저가 철 강수입재 확대와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 경제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신청서 접수 이후 지난 10월21일 광양

현지실사, 관계부처·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 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결과, 광양시 를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최종지정했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 에 따라 정부는 최대 1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 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 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 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 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 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지

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 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 화 등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광양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약 381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아 지역 재정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광양 철강 산업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업 중흥의 선봉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지사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저탄 소·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강 중소기업 금융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고용 안정, 인력 양성, 노후산단 재생은 물론, 철강 AI·로봇 자동화와 첨단 신소재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 회복과 미래산 업기반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철강기업의 탄소 감축, 전력 인프라 확충, 기술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K-스 틸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 강기술 개발, 저탄소 철강 전환 투자, 특구 지정 과 규제특례, 전력·수소 인프라의 국가계획 반 영 등이 가능해져 보다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광양이 대한민국 대표 철강도시로 다시 도약하도록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철강산 업의 탈탄소·미래산업 전환, 청정수소 산업벨트 조성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양시원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동학술대회 내년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20일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고립·은둔 문제에 대응하는 공동 학술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민주당, 호남 발전 전략 구체화 속도 낸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당대표 보고회 개최 RE100 산단·국립의대 등 추가지원 요청 지방정부재정강화법・예타기준상향제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20일 오 후 3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현안 해결 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지난 8월 상설 특별기구로 출범한 호남특위 는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호남 숙원사업 및 미래 아젠다를 마련해왔다.

보고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민수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 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 발전 전략이 국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을이끄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보고회는 이병훈(광주)·이원택(전북)·김성 (전남) 수석부위원장의 권역별 활동 보고 후 위 원회가 마련한 호남 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했다.

호남 발전 전략은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광역 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 지역 현 안 및 미래성장 사업과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현안 사업은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 사업 등 3단계로 구분해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 을 제시했다.

당면사업은내년도국가예산반영을우선추진 하고 중장기 사업과 초광역 협력사업인 RE100 첨단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

대 신설 등은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 장 전략에 발맞춰 호남 등 비수도권의 지방 재원 을확대하는 '지방정부재정강화법'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에서 2 7%로 확대하고 중앙·지방의 소비세율을 7.5대 2.5에서 5.5대 4.5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원(국 비 300억원)에서 1천500억원(국비 900억원)으로 상향하고비수도권및인구소멸지역의예타면제 근거 신설,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대 등도함께 제안했다.

서삼석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은 "호남 발전 전략이 500만 호남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 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 과 미래 아젠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 가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지역MBC사장협의회 등 지역언론 4대협의회 는 20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울산에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을 초청해 '새정부 지역언론 정책 방향 을 듣다'라는 주제로 특강과 미디어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지역신문·지역방송, 지방시대 실현 '맞손'

로컬미디어데이 개최···연대·협력 천명 4대 협의회, 이규연 수석 초청 간담회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 고유 영역을 초월해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언론 가치 제고와 더 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 도민일보 회장),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동 관 매일신문 사장),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회 장 김한덕 TBS 대구방송 사장), 지역MBC사장 협의회(의장 황외진 대구MBC 사장)는 20일 오 후 롯데호텔 울산에서 '로컬미디어데이'를 개 최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았다.

지역언론 4대 단체 대표들은 "저널리즘 위기 와 비지니스 위기라는 삼각 파도가 지역언론을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급변 하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전환은 지역 언론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진단했다.

4대 단체 대표들은 "지역언론들은 각자도생

하는 갈라진 목소리 대신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언론의 가치 제고를 통해 지역 공동체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오늘 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지방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역언론 4대 단체는 이날 정례적으로 매년 로컬미디어데이를 개최하기로 하고 첫 초대손 님으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을 초청, 이재명 정부의 지역언론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이 수석은 4대 지역언론 단체와의 대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언론 지원 정책과 국정홍보 철학 등을 공유했다.

이규연 수석은 "지역언론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다 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역언론들이 균형 발전과 여론 다양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우선지원대상사 확대 ▲지역신문발전위원 회 역할 강화 ▲지역신문 역량 강화 및 AI 인프 라 지원 등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 정책을 소개 〈대신협 공동취재단〉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활희 062)222-1095, 1096

대명OA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취/급/품/목

- 목사기□ 컴퓨터□ FAX
-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져(토너/드럼)
- 카트리지
-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A/S ▫임 대

T.375-5880

[감정가 이하]

○ 감정가6억2,000 == 급매4억1,000 임동5거리 대로변8층135평(바로입주가능) [시세반값 급매물]



- 백운광장 대로변코너 상업지289평(분할가능)평당1.600
- 법원앞 대로변코너 전철역입구예정지 대지283평 평당1,200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순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